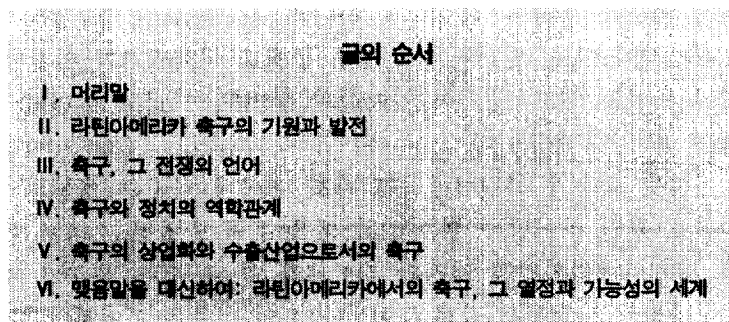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축구와 사회

유왕무(배재대학교)



I. 머리말

스포츠 중에서 축구만큼 보편성을 획득한 스포츠도 없을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주 주말마다 온 국민을 들뜨게 하고, 매 4년마다 전 지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유일한 운동이 바로 축구이다. 그래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로서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레 70센티미터, 무게 450그램도 안 되는 작은 축구공 하나에는 한 나라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들이 녹녹히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간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열렬한 축구 팬인 에르네스토 사바토가 “축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미덕들을 표현한다. 나는 월드컵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

며 때로는 괴로워했던 많은 아르헨티나인 중의 한 명이다. 축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다. 축구는 인간의 훌륭한 자질들을 일깨운다. 지능 개발, 임기응변능력, 용기, 결단력, 지구력, 이러한 미덕들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¹⁾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축구가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요, 생활의 필수품이다.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축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생활의 일부이자, 하나의 종교와도 같다. 일상 대화의 주제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축구 문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축제의 구실도 되고, 심지어는 자살의 동기도, 그리고 살인의 동기도 되는 것이 이 축구이다.

이렇듯 축구가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본 논문의 출발점도 바로 이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인들 열정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축구가 과연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구조와 어떠한 역학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적을 설정해 본다. 제1장의 머리말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축구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축구의 정체성은 물론, 어떻게 해서 모든 국민의 열정적 대상이 되었는가를 밝히려는 노력이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흔히 발생하는 축구장 폭력의 내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역대 지도자들이 정권유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나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축구의 속성을 이용해서 축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하였던 역사적 사례를 고찰해봄으로써, 축구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축구의 상업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축구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어가고, 선수들의 상품성이 중시됨에

1) Clarín, 24 de junio de 1978

따라 축구의 사회적 의미 또한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땀을 흘리는 대신하여,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재 축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등을 결론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축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입되었으며,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II. 라틴아메리카 축구의 기원과 발전

지금까지 축구의 원조자들은 중국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볼리비아의 아마존 지역에 사는 인디오들에 의하면, 단단한 고무공의 뒤를 쫓아 달려가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막대기 사이에 공을 집어넣는 전통이 그들에게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또 18세기 경에 예수회 선교에 나섰던 스페인 신부 한 명은 파라니족들은 “우리들처럼 손으로 공을 치지 않고 맨발 위 부분으로 찬다”고 적고 있다.²⁾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의 그림이나 치첸이사의 구기 경기장 시설에서 인디오들이 공을 발이나 무릎으로 차는 펠로타 경기를 즐긴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멕시코와 중미의 인디오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엉덩이나 앞발로 공을 때렸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일본인들도 공차기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원 전 5세기 그리스 무덤의 대리석상에는 무릎으로 공차기하는 그림이 나타나 있다. 안티파네스의 회극에는 ‘긴 공, 짧은 패스, 앞으로 쪽 뻗어나는 공...’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나타나 있으며, 카이사르는 두 다리를 능통하게 사용했으며, 네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2) Galeano, Eduardo. *El fútbol*. México: Siglo XXI, 1995, p.27

전해지고 있다.”³⁾ 그래서 갈레아노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인들은 축구와 매우 유사한 그 어떤 경기를 즐기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 병사들의 공차기 놀이가 제일 먼저 유입된 곳은 영국이다. 수세기가 지난 1314년에 에드워드 2세는, 하층민들이 즐기고 있는 이 운동에 대해서 몇 사람의 힘으로도 굴리기 힘들고 엄청난 피해를 끼칠 정도로 커다란 공들을 가지고 시합을 벌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무더기로 모여 시합을 하였으며, 선수, 시간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었다. 마을 전체가 다른 마을 사람 전체와 시합을 하기도 하였다. 경기장도 수 킬로미터로 넓어졌다. 발길질과 주먹질은 예사였다. 너무 폭력적이어서 뼈가 부러지거나 구보다 더한 중상,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보통이었다.⁴⁾ 비로소 왕들은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금지시키기에 이르러서, “1349년, 에드워드 3세는 축구를 ‘어리석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운동으로 규정하였고, 1410년에는 헨리 4세가, 1547년에는 헨리 5세가 금지령을 내렸다.”⁵⁾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법으로 금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축구를 즐기게 되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법이라고 했던가. 금지에 대한 충동적 반작용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축구를 즐긴 계층은 하층민들만이 아니었다. 상층 귀족의 청년 자제들의 생활도 시간적 여유가 많고 특별히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룸펜과 동일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여가를 즐기고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었다. 마침내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르러, 축구가 평민들뿐 아니라 귀족들을 위한 스포츠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귀족들의 자제들은 미래의 사회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대학이나 중,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젊을 열정을 발산하는 한편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체득하

3) *Ibid.*, p.25

4) Elias, N and E. Dunning. ‘Folk football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Britain’ in E. Dunning(ed), *The sociology of Sport*, London: Frank Cass, 1970, pp.119-120

5) Eduardo Galeano. *op.cit.*, p.26

게 된다. 그들은 축구를 통해 이기는 법을 배운다.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자제력과 통제력도 배운다. 그리고 상층계급 귀족들은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계층의 또 다른 극단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축구를 통해서 위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축구가 그들로 하여금 파업과 기타 다른 나쁜 생각들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근대 형태의 축구는 1863년 형성되었다. 당시 열 두 개의 영국 클럽들은 럭비와 축구를 구별하기 위해서 1846년 캠브리지 대학이 세웠던 규칙을 원용하는 협정을 맺었다.⁶⁾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을 손으로 만질 수는 있으나, 손으로 공을 들고 가는 것은 금지했고, 상대방을 발로 차는 것을 금지했다. 선수의 수, 경기장 넓이, 골대의 높이, 경기의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대방 등 뒤쪽 후위에서 골을 넣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했으며, 퇴장의 규칙도 존재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 근대적 축구가 전래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정확하게는 1860년 영국 선원들에 의해 아르헨티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들은 영국 상선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의 부두와 방파제에서 공을 차고 놀았다. 이때부터 축구는 영국의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맨체스터의 옷감, 철도, 베링스 은행단의 채권이나 자유무역이론 등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라 플라타 강 유역은 라틴아메리카 축구의 발상지가 된 것이다. 이 당시 지역 팀의 주요 구성원들은 영국 외교관들, 철도, 가스, 선박 회사 직원들, 수입품 독점 판매상들이었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약 4만 5천명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이들이 리버 플레이트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초창기 클럽을 형성하였다. 우루과이의 첫 번째 클럽은 1861년 몬테비데오에 세운 알비온FC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영국계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배웠다는 보고가 있었고, 1891년 철도 노동자들은 지금의 페나롤 클럽을 만들었다. 그들의 라이벌 나씨오날은 1899년에 창립되었

6) Juan José Sebreli. *La era del fútbol*.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1998, p.19

다. 칠레에는 1889년 발파라이소 항구를 통해 들어온 선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로부터 6년 후 주로 영국계 클럽 9개로 축구협회를 만들었다.⁷⁾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첫 번째 국제 경기는 1889년에 우루과이에서 있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주 영국인들과 몬테비데오 거주 영국인들간에 벌어진 이 경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거대한 초상화 밑에서 거행되었다.⁸⁾ 브라질은 1890년 역시 영국 선원들에 의해서 축구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94년에는 '상 파울루 리그'가, 1906년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 리그'가 탄생하였다. 멕시코에는 1898년 영국의 광산 기술 고문관들에 의해 도입되어졌다.⁹⁾

브라질, 우루과이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계층은 상류층이다. 선수들도 영국인 2세들이나 대지주 부호들의 엘리트 자제들만으로 구성되었으며, 1910년까지 알론시, 벨그라노, 퀴메스 등이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엘리트 클럽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초창기 아르헨티나의 모든 클럽들은 상층계급의 소유였고,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회장들도 모두 과두체제 지배자들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대중문화 비평가인 후안 호세 소브렐리가 지적하였듯이, 모든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축구 또한 지배계급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가, 하층계급에 의해 모방되고 변형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¹⁰⁾ 즉 영국인들에 의해 도입된 후 부두 노동자들과 하층계급 젊은이들에 의해 모방된 축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중들에 의해 급속히 받아들여졌다. 라 플라타 강 유역에서는 철도 공장과 항만 조선소에서 조직된 일반 대중들의 클럽이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1915년에 이르러서는 축구의 민주화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리우 데 자네이루의 잡지 「스포츠」에는 다음과 같은 불만 섞인 기사가 실렸다:

7) Oliver, G. *The Guinness Record of world soccer*, Enfield: Guinness Publishing, 1992, p.639

8) Eduardo Galeano. *op.cit.*, pp.31-32

9) Tony Mason. *Passion of the people?* New York: Verso, 1995, pp.1-5

10) Juan José Sebreli, *op.cit.*, p.26

사회적 지위가 있는 우리들이 노동자들이나 운전기사들과 함께 게임을 해야만 하다니... 운동 연습은 이제 하나의 고통이고 희생일 뿐이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다.¹¹⁾

축구가 라틴아메리카에 발을 내딛은 지 불과 50여 년만에 완전하게 민중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사였다.

이렇게 되자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구성된 팀간의 갈등도 발생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인종문제까지 포함되는 양상을 보였다. 192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페소아는 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생각해서 흑인 선수들을 절대로 출전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는 흑인뿐 아니라 몰라토도 출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플루미넨세 팀의 유일한 몰라토인 알베르토 선수는 얼굴을 찡가루로 하얗게 분칠하고 뛰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축구가 영국인들과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축구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열정과 공격적 성향을 폭발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가난과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루 종일 땀을 흘렸다. 당시 축구에 전념하는 젊은이들은 대다수가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들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민 오거나 내륙에서 이주해 온 농민들의 자식들이었다. 대부분 극빈 프롤레타리아 계급 혹은 롬펜에 가까운 생활자들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강요된 사회화 과정에 저항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930년대 들어서 산업화가 가속화되자, 롬펜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축구 선수들도 도시나 공장 지대로 일터를 잡고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내 축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공을 차려고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를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프로 축구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아

11) Eduardo Galeano. *op. cit.*, p.34에서 재인용

르헨티나에서는 1931년에 프로화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우루과이가 따랐다. 브라질에서의 프로 리그는 1934년에 시작되었다.¹²⁾ 그렇게 되자, 그 전에는 음성적으로 탁자 밑에서 주고받던 돈의 지불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선수들은 또 다른 모습의 노동자로 변모하였다. 계약서는 선수들을 계약기간 내내 혹은 평생 그 클럽에 잡아 두는 노비문서 구실을 하였다. 클럽이 그를 팔지 않는다면 그는 일터를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선수들은 산업 노동자처럼 임금 대신 그들의 에너지를 제공하였고, 흙더미의 농노처럼 죄수의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초창기의 프로 축구는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단지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의 의무적인 연습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의료진단서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페소의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다.

축구가 하층계급의 운동으로 변화되고 대중을 상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되자, 부르주아 계급들은 축구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30년대에 이르자 초창기 아르헨티나 귀족계급들은 자신들이 운영 하던 클럽에서 손을 떼고 럭비나 테니스와 같은 귀족적 운동을 찾아 나섰다. 그 사이 가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축구 클럽은 아홉 개나 등장하였다. 이 때부터 유럽 스타일의 축구 형태를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토종 축구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기술, 재능, 직업적 준비가 유럽 축구의 특성이라면 본능, 자발성, 즉흥성 등이 토종 축구의 특징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 스포츠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축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 말 도입기부터 프로화가 되기까지의 시기로서, 극소수 엘리트 상층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귀족 학교에서 축구를 배우는 목적도 성인이 되어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때를 대비한 덕목을 익히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20세기 중 후반까지 축구는 완전히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잡는다. 선수나 관객이나 대다수가 하층계급 혹은 중 하층계급에 속하였다. 그러나 클럽 구단주들은 기업인,

12) Tony Mason. *op.cit.*, p.49

언론인, 정치인들으로써 여전히 상층계급 인물들이었다. 소유주와 피소유주들과의 이러한 차이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축구가 가지고 있는 대중 조작 혹은 대중 통제적인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와 일치한다. 이제 축구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들의 것도 아니며 하층민들만의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의 열정적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매스컴의 영향 때문이다. 엘리트 문화, 민중 문화가 따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동질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같은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계층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대중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였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시되는 시대이다.

III. 축구, 그 전쟁의 언어

중요한 경기의 식전 행사 때마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국가간, 인종간의 화합과 단결을 촉구하는 인사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정작 경기가 끝난 후에는 팬들간의 난투극, 심지어는 국가간 전쟁이 일어난 경우까지도 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축구를 “전쟁의 형식적 승화”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구의 호전성을 갈파하였다.

짧은 바지를 입은 11명의 사람들은 그 나라 혹은 도시, 마을의 칼이다. 무기도 없고 방탄조끼도 입지 않은 이 전사들은 대중에게 확고한 신념을 심어준다. 두 팀 사이의 격전이 펼쳐질 때마다,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오래된 애증의 전투가 시작된다.¹³⁾

‘공격’, ‘수비’, ‘돌파’, ‘선방’ 등 실제 축구에서 사용되는 어휘들만

13) Eduardo Galeano. *op.cit.*, p.18

보아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축구는 곧 전쟁이다.

축구의 근본적 특성 중 하나가 공격성의 분출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규칙과, 제한된 장소, 시간을 정한 것일 게다. 그러나 경기장 폭력은 선수들보다는 경기에 심취한 광신적 팬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홀리건', 스페인의 '울트라', 이탈리아의 '테피스티', 브라질의 '토르시다', 아르헨티나의 '바라스 브라바스' 등이 대표적인 광신적 '난동꾼'들이다. 이들은 좁게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클럽을, 넓게는 자신들의 조국을 지나치게 위한 나머지 지역적 갈등, 심지어 국제적 분쟁까지도 야기 시키곤 한다. 축구 경기 중 일어난 참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관중의 초과 입장, 흥분한 관중들의 공격성, 당국의 통제 부족이 복합되어 야기된 사건들이 대부분인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50년 네루다가 '자연의 찬가'를 발표하고, 옥타비오 파스의 '고독의 미로' 초판이 나왔다. 바로 그 해 브라질에서는 제4회 월드컵이 열렸다. 홈팀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맞붙었다. 브라질은 승승장구했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결승전은 한바탕 축제 분위기였다. 일간 신문들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브라질 우승 기사를 인쇄할 정도로 브라질의 승리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우루과이의 2대1 승리였다. 그러자 20만 명의 관중들은 이성을 잃고서 공격성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사상자와 자살자를 합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본 이 사건은 일명 '마라카낭의 비극'으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입장 관중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2만 명이 넘어가면서 당국도 통제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당시의 브라질 골키퍼였던 바르보자는 그 후 '국민적 역적'으로 간주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 최고의 골키퍼로 국민적 추앙을 받던 선수가 한 순간에 저주의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그 후 43년의 세월이 흐른 1993년,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전 당시 바르보자는 브라질 대표팀을 격려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선수촌을 방문했으

나, 당국은 결국 그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의 범죄 최고 형벌은 징역 30년이다. 그러나 바르보자는 그가 수비실수를 했다던가 하는 결정적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던 단 한 경기에서의 패배로 인해 무려 43년간이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렇게 어느 특정 선수에게 관중의 공격성이 발현되는 경우는 많다. 그 중에서 선수의 목숨까지 앓아간 경우도 있다. 1994년 월드컵에서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선수는 매데인에서 총기 사격으로 사망했다. 그는 자살권을 넣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조국을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축구는 전쟁을 은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축구가 종종 실제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축구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폭력은 축구에서 직접적으로 연유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간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매개체 노릇을 할뿐이다. 게다가 그 매개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69년 온두라스와 엘 살바도르 사이에 마침내 그 유명한 ‘축구 전쟁’이 일어났다. 테구시갈파와 산 살바도르 스타디움에서 전쟁의 불씨가 당겨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양국은 모두 중미의 약소국이면서 가난한 나라들이다. 양국은 한 세기 이상 동안 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지도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항상 자신들의 문제를 상대국 탓으로 돌렸다.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즉, 온두라스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엘 살바도르인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이며, 엘 살바도르인들이 배고파 굶주리는 까닭은 온두라스인들이 그들을 엉망으로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자국 국민들을 부추겼다. 양국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이웃 국가가 바로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양국에서 계속되는 군사 독재는 이러한 착각을 영구히 공고화하였다.

1970년 월드컵 예선전으로 일어난 이 전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약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전쟁은 두 나라 독재 정권이 상호 증오의 불씨에 불을 지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14) *Ibid.*, p.102

대지주와 지배계층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으며,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만이 애국적인 열정을 가지고 서로간에 살상을 자행하며 복수를 했다. “당시 테구시갈과 곳곳에서는 ‘온두라스인: 그들은 각 목을 들고 엘 살바도르인들을 죽인다’ 라는 표어가 나붙었으며, 산 살바도르에서는 ‘이 야만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격문이 도시 곳곳에 붙어 있었다”¹⁵⁾ 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건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축구에서의 폭력적 사건은 시대 상황에 따라 증감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188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광적 팬들에 의한 경기장 폭력 사건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는 상당히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주더니 이러한 추세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때문으로 보인다. 그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특히 6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다. 특히 66년 영국에서의 월드컵 개최를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70년대 이후로도 광신적 난동꾼들의 횡방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클럽이나 국가대표팀 끼리 벌이는 지역 대회와 국제 대회가 날로 증가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광신적 난동꾼들의 폭력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변창할 지 알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축구에서 난동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공식적인 설명에는 항상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등장한다. 물론 이것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중요한 원인들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축구는 영국 귀족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폭력 순화책으로 탄생된 것이다. 럭비와 함께 만들어진 축구는 일정한 규정과 일정한 환경 속에서 당국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서, 학생들에게 잠재된 공격성을 발산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즉, 축구 자체가 이미 공격성의 발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신체의 일부 중에서도 ‘발로 찬다’는 행위는 남성다움과 강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15) *Ibid.*, p.150

는 행위”¹⁶⁾라고 설명한다. 프로이드도 공격성을 죽음이나 타나토스와 같은 내재적 본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내재적 요인에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가미되면서, 축구를 관전하고 있던 ‘난동꾼’들의 잠재된 폭력성이 군중적 응집력을 보이며 폭발하는 것이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이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실업의 증가, 경기 침체, 인종 차별, 정치적 불안족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유럽에서 외국인 혐오증까지 가세되고 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적 불안감, 어느 특정 클럽의 일원이 되고픈 욕구,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싶은 마음, 경제적 좌절감 등이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행사를 통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이 경기의 일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¹⁷⁾ 이들은 주로 정치,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노동자들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축구장 폭력을 조장하여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정치가도 있었다. 아르투로 일리아를 쿠데타로 내쫓고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옹가니아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영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1966년 6월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당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영국과의 경기에서 독일 심판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패하고 말았다. 이에 흥분한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관중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들이 아르헨티나로 귀국하자, 옹가니가는 대표 팀을 환영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도덕적 우승자’라고 추켜세웠다.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는 길거리에서의 입맞춤은 물론 두발, 의복까지도 검열하는 얼어붙은 탄압의 시기였다. 그런데 축구장에서의 폭력을 칭찬하다니. 어쨌든 그 후로 아르헨티나에서의 축구장 폭력은 더욱 격화되었다. 196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켈틱 팀과 아르헨티나의 레이싱 팀간의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오히려

16) F. Buytendijk, *Le football. Un étude psychologique*, Paris: Desclee des Brouwer, 1952, p.39

17) Eugene Wong, *A development model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youth sport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p.147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측의 칭찬을 받았다. 1968년에는 그라운드에서 폭력을 행사한 선수들이 축구협회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으며, 형벌을 받은 두 명의 선수도 축구협회의 도움으로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축구장 폭력은 이제 아르헨티나 생활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로 당연시되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당국은 이를 모른 채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었다. 폭력을 일상화함으로써 군사정권이 자행하는 정치적 폭력을 합리화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을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술책인 것이다. 실제로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의 비밀 고문과 처형, 그리고 좌익 혁명 세력에 의한 납치와 암살 등의 정치적 폭력이 난무한 상태였다. 결국 1969년 들어서자 아르헨티나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5월말에는 대학생들과 자동차 노조의 선동으로 48시간 이상 폭동을 일으킨 코르도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순수한 열정의 소산이라며 부추긴 언론의 무책임,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비호, 당국의 무관심 등이 빚어낸 스타디움에서의 일상적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위한 심리적 준비단계 역할을 한 것이다. 70년대부터 불어닥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정점을 이룰 폭력 사태에 시민들을 미리 길들이고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의 소산이었다. 폭력적 죽음을 일상 생활의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려는 대중 조작 장치의 일부였던 것이다.

IV. 축구와 정치의 역학관계

라틴아메리카에서 축구는 생활의 일부이며 전 국민의 필수품이다. 그래서 '축구를 통제한다'는 말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구를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곧 국민을 통제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권력의 획득과 경제적 부의

축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축구를 이용해서 대중들의 열정을 한 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민족적 단결력을 공고히 하거나, 현실적 정치 문제로부터 무관심하게 멀리 떨어뜨리는 조작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무솔리니, 히틀러, 프랑코, 페론 등이 그러한 축구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용한 인물들이다. 무솔리니는 그 중에서도 축구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간파하였다. 그는 ‘축구와 조국은 항상 함께 있다’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십분 이용했다. 이탈리아에서 거행된 1934년 월드컵 대회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무대로 이용하였다. 당시 이탈리아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과 종료 시에 항상 “이탈리아 만세!”를 부르며 관중을 향해 인사를 했다. 1938년 파리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헝가리와 결승전을 가지게 되었다. 무솔리니에게 있어서 이 날의 승리는 곧 국가 전체의 문제였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결승전 전야에 파시즘 최고 권력자인 무솔리니로부터 전보를 하나 받았다. 단 세 마디만이 쓰여 있었다: “승리 아니면 죽음”.¹⁸⁾ 그들은 다행히도 헝가리를 4대2로 이겨서 죽음을 모면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축구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70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브라질 전체가 축제에 휩싸여 있을 때, 브라질의 독재자 메디시 장군은 선수들에게 금일봉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손에 트로피를 쥔 채 헤딩하는 모습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표팀을 위해 작곡된 행진가 ‘브라질의 전진을 위하여’는 정부의 공식 음악이 되었다. 펠레의 이미지는 ‘이젠 아무도 브라질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카피와 함께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78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을 때, 비델라 장군도 그와 똑같은 목적으로, 뛰어난 체력의 소유자로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던 캄페스 선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¹⁹⁾ 그 장군들은 축구와 국가와 권력을 동일시 한 것이다.

18) Galeano. *op.cit.*, p.79

19) *Ibid.*

정치적 정통성이 빈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부정권이 축구의 덕을 본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는 아르헨티나의 비텔라 정권(1976-1983)을 들 수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비텔라는 국내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동시에 일말의 성취감을 갖게 하며, 외국에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78년의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편으로 무장반군단체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축구연맹을 구슬려 월드컵 개최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이 앞장서서 대회를 보이콧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에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²⁰⁾ 그러나 결국 유럽의 10개국, 아메리카의 4개국, 튀니지와 이란이 참가한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이 개막되었다.

프레스센터와 스타디움, 공항시설 모두가 완벽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5천여 명의 기자들은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개최하였던 38년 올림픽과 거의 흡사했다고 하였다. 물론 행사의 화려함과 호사스러움을 두고 한 말이다. 교황은 로마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비텔라 장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모뉴멘탈 스타디움에서의 개막식 때, 군인 행진곡에 맞추어 아벨란제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아벨란제는 “마침내 세계는 아르헨티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적인 축하 연설을 하였다. 스타디움의 관중들은 “비텔라!”를 연호하였다. 모든 행사가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 이베리꼬 사인트 진은 다음과 같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 스타디움에 참가할 기회를 가진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부(國父)와 군부의 장군들 한 명 한 명을 칭송하는가를 듣고 볼 수 있었다. 군중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산 로렌소 행진곡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지었다.²¹⁾

20) 당시의 국제적 보이콧 상황에 대한 설명은 Tony Mason, *Passion of the People?* op.cit., pp.191-194 에 자세히 설명되었다.

군부의 당초 의도가 충분히 달성된 것이다. 아니 오히려 월드컵을 통해 그들의 입지가 더욱 굳혀졌다. 세르히오 세론 기자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모든 지식 계층과 사회계급의 장벽을 허무는, 놀라울 정도로 단결된 화합의 인파로 길거리를 가득 메웠다”²²⁾ 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세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아르헨티나에 정치범이 존재하리라는 사실은 세계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누멘탈 스타디움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는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웅변하는 상징적 건물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아우슈비츠라고 할 수 있는, 고문과 학살의 중심지인 해군기제학교의 중심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는 동안에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아르헨티나 바닷가에서는 비행기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실어다가 바다 속에 던져서 생매장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지출과 적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 갈레아노는, “이는 군부의 압제하에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지출”²³⁾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호기심이나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이든 상관없이 반역자로 몰리기 십상이었다. 월드컵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성역과 다름 없었다. 선수들이나 감독에 대한 비난 행위도 일체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설가들은 대표팀의 실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했다. 아르헨티나 농축산업협회 회장인 셀레도니오 페레다는, 축구의 덕택으로 “아르헨티나의 일부 배은망덕한 자들이 서방 언론 매체에 퍼뜨린 왜곡된 증상 모략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²⁴⁾고 공언하였다. 월드컵 준비를 총괄하던 해군 제독 카를로스

21) *La opinión*, 15 de junio de 1978

22) Sergio Cerón, ‘El Argentinazo tras la conquista del título’, *La opinión*, 28 de junio de 1978

23) Eduardo Galeano. *op.cit.*, p.177

알베르토 라코스테는 거액의 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운용하였다. 월드컵이 끝나자 그간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쿠바도 역시 축구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데 쿠바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대로 스포츠 행정이 당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있다.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궤를 같이하고 있고, 그 중 '국민 축구' 경기는 정권 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여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축구를 하게 허락한다. 또한 축구 우수자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대표로 발탁한다. 이들에게는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월급을 제공하고 있다.²⁴⁾ 그러므로 쿠바에서는 축구를 여가선용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통제를 위한 다목적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는 역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가 선거 기간과 겹쳐지는 경우에 특히 더하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온 국민들의 시선은 미국에 쏠려 있었다. 정치적 공백 상태였다. 멕시코 국민들은 정치적 안정이나 민주주의의 실현, 콜로시오 후보의 죽음, 마약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다. 결국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와 스포츠를 연결시킬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세디요 후보도 유명한 스포츠인들을 자신의 지지유세에 동원하고, 스포츠 진흥법을 개정하는 성의를 보였다. 사회적 합일을 더욱 손쉽게 이루고 광범위한 계층의 정치적

24) Ibid., p.177에서 재인용

25) James Riordan, *Sport under communism*, Montreal: Mc. Gill Queen's University Press, 1978, pp.156-157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언론에서도 어느 후보가 어느 경기를 누구와 함께 관람하였는지에 대해 빠뜨리지 않고 보도를 하였다. 후보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자들을 초청해 그것이 그들 가족의 특별한 이벤트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멕시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멕시코 축구협회와 협회 지도자들은 물론 정치권도 미국 월드컵을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딛고 돌리는데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스포츠를 둘러싼 그러한 비난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우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통산 4번째 우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우승은 단지 대표팀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전 국민의 승리였으며,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브라질 민주사회당 대통령 후보였던 페르난도 카르두주는 월드컵 우승이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대표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이용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는 1970년 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강력한 군부 철권정치를 펼치던 정부는 민족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월드컵 우승을 국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은 미국 월드컵 우승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정당의 지지자들을 빠른 시일 동안 결집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호마리우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노동자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도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축구를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인물로는 페론주의자들을 꼽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페론 자신은 개인적으로 축구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스타디움에 모습을 드러내고 시축을 했으며, 연설 사이사이에 축구 용어나 축구에 관한 일화를 끼워 넣곤 하였다. 페론 정권 시절에 세워진 스타디움도 3개나 된

다. 축구 전문 잡지를 이용한 정치 선전도 시도하였는데, 「문도 데포르티보」라는 잡지가 대표적 정권결탁형이었다. 또한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하였다. '에비타 컵 유소년 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소년층을 공략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포섭하기 위해 '중, 고생 축구 연맹'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우수 선수 육성보다는 페론 자신의 여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회유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페론주의자들이 축구를 정치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였던 것은 '난동꾼' 지도자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축구장에서 사용하던 슬로건과 응원가를 용어만 정치적 용어로 바꾼 채 그대로 정치선전에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자들과 축구와의 관계는 항상 상호의존적이었다. 1955년 페론 정권이 무너지자 축구 클럽은 페론주의자들의 도피처가 되었다. 보카 주니어스가 대표적인 클럽이었다. 보카 주니어스는 곧 페론주의와 동일시되는 상징적 클럽이었으며, 클럽의 운영자들은 곧 민중 운동 지도자들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페론의 국외추방 시절, 축구 스타디움은 페론주의자들의 행진 장소였다. 로마 시대의 서커스 장이나 비잔틴 제국의 전차 경기장과 같이, 아르헨티나의 현대적 축구장이 종종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이 숨어드는 장소로 변모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축구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구가 정치적, 경제적, 민중적 무기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특정 정치 집단의 정권과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써, 혹은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정치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 축구의 상업화와 수출산업으로서의 축구

축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보편적 스포츠로서의 자리를

군허감에 따라서 스포츠 상업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의 제1회 월드컵 대회 이후 국제경기가 증가하면서부터 축구의 상업적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 대회 이후 축구가 프로화 되면서 다른 사업들의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구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축구의 실질적인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시점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대회로 꼽힌다.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 중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스타디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몰려들었으며, 광고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축구를 에워싼 주변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후 1962년 칠레 월드컵 대회 결승전인 브라질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경기가 인류 최초로 직접 위성중계 되었다. 비록 흑백이고 중계되는 나라의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부터 텔레비전 위성중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63년에 발사한 통신위성(신콤)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위력을 실감한 FIFA는 월드컵의 텔레비전 중계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웬블리구장에서 연장까지 가는 사투를 벌인 잉글랜드와 당시 서독의 결승전은 미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축구의 상업화가 더욱 강력해졌다. 축구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텔레비전 중계권, 광고효과, 선수 트레이드 등을 꼽을 수 있다.

텔레비전 중계권료의 판매는 국제대회의 황금 광맥 중에서도 가장 큰 노른자위 광맥이며, FIFA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 작은 화면을 위한 지불액 중에서 일부를 받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월드컵을 세계 전역에 직접 중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 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1993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때에는, 단지 국내에만 중계가 가능하였던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와 비교해 볼 때, 무려 360배나 많은 돈을 텔레비전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스타디움은 점차 거대한 방송국 스튜디오로

변하고 있다. 선수들은 텔레비전을 위해 경기를 하며, 텔레비전은 전 세계인들이 경기를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극대화 된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경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 예로, 86년 멕시코 월드컵과 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텔레비전은 선수들을 햇볕이 이글거리는 정오에 경기를 하도록 밀어냈다. 유럽에서 해가 질 저녁 시간대에 집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유럽 텔레비전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선수들은 이글거리는 태양아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없었다. 그러나 흥행이 게임의 질보다 우선 이었다. 86년 월드컵을 주도한 것은 멕시코 축구연맹이 아니었다. 멕시코 '텔레비사'의 부사장인 기예르모 카네다였다. 이 대회는 멕시코 축구의 주인이자, 멕시코 독점 사기업 텔레비사의 월드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텔레비사는 유럽 시장에 대한 중계권료를 FIFA와 함께 공동으로 받고 그들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텔레비사는 멕시코 축구의 국내, 외 중계권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멕시코 1부 리그의 가장 강력한 클럽인 아메리카, 네카와, 아틀란테도 그의 소유이다.

텔레비전 중계 덕택으로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 찬 수천 명의 관중들뿐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루빈 데 셀리스는 1994년 월드컵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게임은 전 세계 180개국에 위성방송 되었으며, 52게임을 본 시청자 수는 연인원 310억 명에 이르렀고, 결승전만도 약 20억 명이 시청하였다.²⁶⁾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열린 한달간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를 시청한 사람은 전 세계 200여국에서 연인원 370억명에 이르렀다.²⁷⁾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월드컵은 이제 세계 최고의 스포츠 행사로 자리잡았고, 축구는 가장 각광받는 종목으로 자리를 굳혔다. 팬들을 확보

26) Claudia Palma Rubín de Celis. *El mundo del fútbol*. México: Editorial Porrúa, 1997, p.98

27) 서기원, 「서기원의 추억의 월드컵」, 『조선일보』, 2001년 1월 18일, 31쪽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텔레비전이라는 사실도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에 맞춰서 경기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한 팬들은 어떤 상품들도 소화해낼 수 있는 잠재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광고를 붙이기 위해 안달이 난다. 그러나, 야구와 농구와는 달리, 축구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임이다. 그 때문에 광고를 내보내기에 적절한 중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축구 경기를 현재의 전, 후반 90분에서, 20분씩 4번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통적인 밤색 공이 지금의 검은 색과 흰색 점박이 공으로 바뀐 것도 비주얼 시대를 맞아 텔레비전에 잘 비추기 위해서다. 현재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더욱 부지런히 뛰어줄 것을 요구한다.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더욱 긴박감 넘치고 활동적인 경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중간중간 편집화면을 내보내면서 박진감 넘치는 재생화면으로 공백시간을 메우고 있다. 미래 세대들은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 때 매우 지루한 느낌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안방의 텔레비전이 스타디움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하튼 텔레비전 방송국의 위상과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관중은 그만큼 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 선수들도 텔레비전 중계가 없이 관중이 꼭 들어차는 일요일 오후 경기보다는, 관중은 없지만 텔레비전 중계가 되는 월요일 저녁 경기를 더 선호한다. 본인들의 미래가 텔레비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단에서도 막강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후원이 없으면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할 수도 없다.

축구와 텔레비전은 상호 공생관계에 있다. 텔레비전은 다수의 시청자들을 단순히 끌어들이면서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한 축구를 필요로 한다. 반면 축구는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를 중계권료로 해결할 수 있으며, 축구를 다양한 사회계층 속에 뿌리내리는 수단으로서 텔레비전을 필요로 한다. 양자간의 상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양자간의 필요성과 결속력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마란치는 이와 같은 양자간의 결합을 '완벽한 혼인 관계'²⁸⁾ 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축구 경기장은 온통 광고판으로 변하였다. 오늘날에는 스타디움의 벽면, 경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의 로고는 물론 모든 축구 선수들은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고 말았다. 유니폼은 물론, 축구화와 양말, 연습복, 자유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광고판 노릇을 한다. 1989년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던 카를로스 메넬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마라도나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친선경기를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어리둥절했다. 메넬의 가슴에는 크게 새겨진 르노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골을 성공시키고 골 세레머니 할 때 셔츠를 많이 들추고 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들추어진 셔츠 속 안에 입고 있던 또 다른 셔츠에 새겨진 상표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고를 위해서는 클럽의 전통적인 유니폼 색깔도 바뀌야 한다. 가슴에 글씨를 새겨야 하기 때문에 글씨가 눈에 잘 띄는 바탕색으로 바뀌야 한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레이싱 팀은 흰색으로 바꾸었고, 보카 주니어스는 노란색 줄무늬의 폭을 넓혀야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줄무늬 셔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셔츠에 광고와 함께 자기회사 이름을 반드시 새겨 넣는 관습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중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기회사 이름을 삭제하고 오직 스폰서의 광고만을 달고서 뛰는 것이 일반적이다.

텔레비전에서 선수들을 가까이 비쳐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수들의 의상 전체가 광고판이다. 만일 어느 스타플레이어가 운동화 끈을 매는 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끈을 매는 그의 손가락 놀림이 서툴러서가 아니다. 텔레비전이 그의 운동화를 비출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행동이다. 주로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상표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1990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독일과 결승전을 벌일 때였다. 경기가 끝나자, 영국의 두

28) Juan José Sebreli. *op.cit.*, p285

신문기자인 심슨과 제닝스는 오로지 주심의 휘슬만이 어느 회사에도 속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뿐이지 경기장 안의 모든 것들이 회사 광고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구공도 아디다스였고, 선수들, 주심, 부심의 몸은 수많은 광고들로 감싸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회사가 기대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다국적 자본주의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다중 대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 극대화임에 틀림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축구 광고로 효과를 톡톡히 본 이탈리아 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이탈리아의 파르마라트 회사는 40여개 국가에 유제품을 팔고 있었는데, 1993년이 황금의 해였다. 그 회사 축구팀인 파르마는 처음으로 유럽 컵에서 우승하였고, 남미에서는 자기 회사의 상표를 가슴에 달고 있는 세 팀, 즉 팔메이라스, 보카 주니어스, 페냐롤이 우승을 한 것이다. 파르마라트사는 18개의 경쟁사 중에서 우뚝 올라서게 되었고, 축구의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에델손, 마징유, 에드문도, 끌레베르, 징유 등과 같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활약했거나 혹은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과 팔메이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천만 불에 사들이기까지 하였다.²⁹⁾

최근 라틴아메리카 클럽들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는 선수 트레이드이다. 물론 그 척도는 스타디움에서의 인기 정도에 달려있다. 선수들은 하나의 상품이며 기계이다. 클럽은 그들의 상품 가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팔고, 사고, 임대한다. 과거의 유명한 선수들은 팀의 우승을 이루는데 주력하였고 우승을 이룬 후에 트레이드 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좀 다르다. 꽃을 채 피우기 전에 팔아버린다. 마치 기계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것은 스포츠 수입이 아니다. 노동 수입이다. 비록 수(手)노동 대신 발노동 임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로 프로 축구 선수들은 그들의 임금

29) Galeano. *op.cit.*, p.110

대신 최대의 흥행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바치는 것이다. 그들의 시세는 완전히 흥행 수입에 달려 있다. 트레이드에서 흥행에 한 몫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기자들이다. 후안 호세 세브렐리는 그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부 스포츠 기자들은 선수들 트레이드에 전념한다. 그들이 글을 쓰는 일간지나 잡지가 발간될 때마다, 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이 더욱 더 좋은 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부풀려 쓴다. 일부 예술 평론가들이 화가들과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엔리케 시보리 감독은 “기자들 중의 40퍼센트는 선수 트레이드에 관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³⁰⁾

갈레아노는 축구산업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매매되면서 겪는 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내륙 도시로, 내륙 도시에서 그 나라 수도의 소형 클럽으로, 소형클럽에서 대형 클럽으로, 대형 클럽은 부채에 숨이 막혀서,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더 큰 클럽으로 그를 팔아 넘긴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 선수의 유럽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³¹⁾

이에 따라 축구 세계에서 선수와 자본의 집중화는 갈수록 가속화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 불가피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점차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 두 개 클럽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유벤투스, 밀란, 레알 마드리드 혹은 바르셀로나 클럽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활동 중인 브라질 선수는 약 2,250명 이상, 우루과이 선수는 약 100명 이상, 아르헨티나 선수는 약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³²⁾ 현재 히바우두 혼자서 몸값이 약 5천만 불 정도이니까 해외에서 활동중인 라틴아메리카 선수와 감

30) Juan José Sebreli, *op.cit.*, p.221

31) Galeano. *op.cit.*, p.239

32) Claudia Palma Rubín de Celis. *op.cit.*, p.96

독의 몸값을 합치면 대단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인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도 1995년에는 전해보다 45% 증가된 2천7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곳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역작용도 만만치 않다. 유명 선수들의 지속적인 반출로 인해 국내 프로 축구가 재미없어 지고, 대중들의 흥미도 반감시키게 되어, 갈수록 팬들도 줄어들고 열정도 줄어든다. 사람들은 국내 경기장을 버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경기 보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자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월드컵 뿐이다. 월드컵 대회가 다가오면,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선수들이 라틴아메리카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비행기 안에서나 잠깐 동안 만나서 알게 되고,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경기를 할뿐이다. 그리고 다시 유럽 소속팀으로 향하게 된다.

브라질이 네 번째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자, 전 국민의 열광적인 축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거의 경이로웠던 플레이에 대한 강한 향수를 피력하였다. 현재 우승팀의 플레이가 과거와 비교할 때 미화적인 감각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린자, 디디, 펠레의 대표팀이 왕관을 거머쥐었던 1958, 1962, 1970년 당시의 화려했던 축구보다는 훨씬 덜 브라질적인 축구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축구는 춤을 추는 듯한 화려한 개인기와 유연한 게임의 흐름이 압권이었다. 음악적 리듬이 있었고 관중들도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화려한 기술과 리듬이 없어졌다. 일부 평론가들은, 비록 승리는 했지만, 관중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감독에 의해 강요된, 억지로 만들어진 듯한 플레이라고 혹평하면서, “브라질은 영혼을 현대 축구에 팔아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갈레아노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중요한 현상을 파악했다. 즉, “과거의 그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가 브라질에서 뛰고 있던 11명의 브라질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94년 당시의 대표팀은 11명 중 8명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수들이었다”³³⁾ 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록 개개인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더라도 팀 플레이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4년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몸값이 비쌌던 선수였던 호마리우가, 1958년 당시의 브라질 대표팀이 받았던 11명분의 봉급 총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스페인에서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낌과 동시에 팀 플레이가 과거와 같을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그 지역 클럽의 상징이었다. 스타 플레이어가 곧 그 클럽 자체였다. 즉 펠레는 곧 산토스였고, 가린차와 디디는 곧 보타포구였다. 그들과 브라질 국가 대표팀의 노란 색 셔츠나 혹은 클럽 고유의 색깔을 떼어놓고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유니폼에 대한 사랑 때문이든, 혹은 얼마 전까지 그들을 평생 동안 잡아두었던 봉건시대 농노계약 때문이든 팬들에게는 그것은 상관없는 문제였다. 어쨌든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슷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자국의 우상들이, 자국 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자국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을 보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넓은 무대를 찾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타디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새벽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유럽 축구를 봐야만 한다.

VI. 땀을 대신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축구, 그 열정과 가능성의 세계

축구는 각 집단의 고유성을 밝혀주고 차이점을 확인시켜주는 삶의 양식이다. 각 마을, 각국은 저마다 개성 있는 축구 양식을 발전시켜

33) Galeano. *op.cit.*, p.240

왔다. 엘리트 계층의 심심풀이 놀이였던 영국식 축구도 항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로 도입되면서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문화양식으로 발전되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구는 라틴아메리카 전 국민의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보면 매우 불균형적인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왔다고 까지 지적할 만하다. 심지어 본토인 영국과 비교해도 그 열기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축구 열풍은 국민적 열정이 뒷받침하고 있다. 너무 열정적이다 못해 가끔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개인, 클럽, 심지어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적 열정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을 몸살나게 만드는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축구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볍고, 부드럽고, 정확하게'로 표현되는 킥 동작과 현란한 개인기, 슛 패스로 연결되는 팀워크 등 라틴아메리카 축구의 대표적 이미지들이 바로 그 국민적 열정의 소산물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축구는 국민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다. 특히 독재정권의 억압과 어두운 암흑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들에게 축구는 가장 단순한 규칙에 의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민주주의였다. 반체제 인사이든 범법자이든 그라운드에서는 누구나 자유의 몸이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그라운드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흑인과 백인의 인종 차별 또한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사회적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이다.

또한 축구공은 축구공 이외의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는 하층계급의 꼬마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요술 방망이이다. 아마도 그 공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그들을 영웅으로, 혹은 신으로까지 만들어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그라운드에서 더욱 더 열정을 불사르는 것이며, 그 열정을 사랑하는 것일 게다. 그라운드만이 불평등, 불공정, 부패와 관계없는 유일한 장소이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정직하게 담보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신우, 『재미있는 축구이야기』, 창작시대, 1996.
- 서기원, "서기원의 추억의 월드컵", 『조선일보』, 2001년 1월 18일.
- 알프레드 바알, 『축구의 역사』, 시공디스커버리총서96, 시공사, 1999.
- Armstrong, Gary and Giulianotti, Richard, *Entering the field*, New York: Berg, 1997.
- Buytendijk, F. *Le football, Un étude psychologique*, Paris: Desclee des Bouver, 1952, pp.39.
- Dunning, E.(ed), *The sociology of Sport*, London: Frank Cass, 1970.,
- Galeano, Eduardo, *El fútbol*, México: Siglo XXI, 1995.
- García-Candau, Julián, *Epica y Lirica del fútbol*, Madrid: Alianza, 1995.
- Giulianotti, Richard, *Football*, Cambridge: Polity Press, 1999.
- Mason, Tony, *Passion of the people?* New York: Verso, 1995.
- Riordan, James, *Sport under communism*, Montreal: Mc. Gill Queen's University Press, 1978.
- Rubin de Celis, Claudia Palma, *El mundo del fútbol*, México: Editorial Porrúa, 1997.
- Valdano, Jorge(ed), *Cuentos de fútbol*, México: Alfaguara, 1995.
- Verdú, Vicente, *El fútbol, Mitos, ritos y símbolos*, Madrid: Alianza, 1980.
- Wong, Eugene, *A development model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youth sport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pp.147, pp.25.
- La opinión*, 15 de junio de 1978.
- La opinión*, 28 de junio de 1978.
- Clarín*, 24 de junio de 1978.